

일체를 거기다 맡기고 편하게 사십시오

29면에서 계속

니지 않습니까? 그런 동시에 우리가 걸음을 걸어 왔는데, 한 발 떼어 놓고 한 발 떼어 놓고 걸어오긴 했는데 걸어온 자취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혼자 걷은 게 아닙니다. 여럿이 작용을 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왔지 아마 몸속에서 위 공장 하나만 그냥 파위가 일어나도 다리도 때어 놓지 못하고 걸어오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만 놓고 보더라도 혼자 뭘 했다는 게 없는데 하물며 가정이나 직장에서야 말해서 뭐합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공심으로 공생하고 공용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 거다 이거죠. 어떤 걸 하더라도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걸림이 없습니다. 그게 참 묘하죠. 말로는 할 수 없는 묘한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삼함에 대해서

문 『한마음 요전』에 보면 삼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의 불씨와 육신과 마음', 그리고 "내가 들어가고 나온 자리를 모르고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는 소와 달구지, 달구지를 탄 사람의 비유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소와 달구지와 마부 삼함을 비유를 하셨습니다. 소와 달구지, 달구지와 달구지를 탄 사람, 달구지를 탄 사람과 소 이 모두를 한 생명으로 묶어 보아야 옳은 것인지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불씨는 우리 원소의 에너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씨는 마음을 내게 할 수 있는 활동력이 있죠.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쳐지면 불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바탕이 바로 원소 자체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불씨라고 합시다. 불씨가 없으면 마음을 낼 수 없고 마음을 낼 수 없다면 육체가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삼함이 동일하게 하나가 돼서 지금 움직여주고 말을 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로 소를 타고 피리를 부는 이 소리와 똑같습니다. 지금 소를 타고 달구지를 끌고 다닙니다. 즉 말하자면 마부는 마음이고, 육신은 달구지요, 소는 자기의 주인공, 바로 자기 조상입니다. 과거에 살던 자기, 현실에 사는 자기는 달구지요, 과거에 살던 자기는 바로 소입니다.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마부는 그 소를 쳐야 달구지를 잘 끌고 가지 않느냐. 달구지에게다 모든 걸 다 실었는데 어떻게 달구지를 치느냐? 지금 기복으로 나가는 게 달구지를 치는 법이요, 바로 지금 마음법을 가르치는 게 소를 치라는 애

입니다. 그러니까 삼함이 같이 동일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을 바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공, '나' 이면서도 내가 공(空)해서 힐 사이 없이 돌아가면서 화해서 돌아간다. 이런 뜻으로써 주인공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소는 과거 자기, 달구지는 현실 자기, 마부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으로써 앙부 조건, 달구지가 깨지든지 말든지 그냥 치는 마음이나, 잘 다스려서 잘 이끌어 가는 지혜로운 다스림이나 이거죠. 마부는 마음이나 마음으로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달구지를 치느냐 소를 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게 바깥으로 빌어왔습니까? "네 뿌리가 네 나무를 돕지 어느 누구도 돕겠느냐." 하고 안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깥으로 지금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찾는 건 제 뿌리를 제가 찾는 것이요, 바깥으로 찾는 건 너의 뿌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안을 치느냐, 바깥을 치느냐에 달려 있죠. 바깥으로, 달구지를 치면 절대로 안 갑니다. 소가 가질 않죠. 그러니까 소를 쳐야 달구지를 끌고 가죠.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안의 소를 쳐야 바로 소가 작용을 하고 작용을 하니까 제도가 되고, 작용을 하니까 일체가 다 제도가 된다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이 그대로 통신이 되면 어느 한 부분에만 통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안을 치면 누진으로 통신이 돼 가지고 사대로 통신이 되는데, 그게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안을 치면 바로 사대, 즉 말하자면 세계로 친다면 세계가 다 통신이 되는 거와 똑같죠. 이 몸뚱이 세포 하나하나에까지도 통신이 되니까요.

그렇게 통신이 되면 어떻게 어떤 건가를 전부 다 알게 돼요. 통신을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 통신이 돼서 다 알고 자꾸자꾸 내 마음이 들어 아니게 돌아간다 보면 들어 아니게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

니까 제도가 돼서 '위로는 일체가 들어 안인 줄 알고, 아래로는 들어 안인 도리로 제도해서 자꾸 안을 치면 그 소가 달구지를 끌고 작용을 한다. 그래서 제도가 된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회중생이 나라. 위로는 부처를 모시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이런 겁니다.

어떻게 나를 찾아서 벗어나는지?

문 스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자신이 수행을 통해 스스로를 벗어나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인과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와 내 가정, 나와 내 사회와의 상호 연관적으로 생활이 연계되어서 나는 벗어나고자 하더라도 내 주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어떻게 제가 어떻게 나를 찾아서 벗어나야 되는 건지요.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걸 공부 재료로 삼아

모든 걸 그저 거침없이 하도록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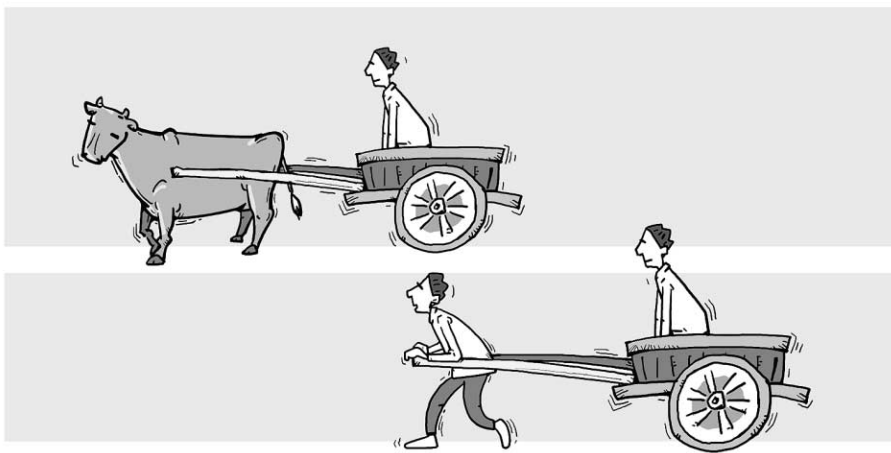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해동승복

직접 만나보세요!!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각종누비

- 면누비 (막물)
- 모직누비
- 물실크 누비
- 무명누비
- 손누비 (명주, 무명...)

동복

- 고급모직
- 무명
- 각종 먹물, 면

장삼, 가사, 조끼, 문배, 셔츠

대구 고속터미널 **편안 동부영양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 P : 011)549-8130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 경북 중부원 부설 법배교육원에서는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등을 교육하고자 2005년 신입생을 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강사: 경허 삼진스님 (영산재 보훈회 회장)

- 1. 교육기간 및 과정** (총 2년 과정, 대한민국의학문화재단 제50호 영산재)
 - 사: 물: 목탁, 요령따루는법
 - 송: 주: 도량석, 종성등
 - 예: 경: 향수해례, 사성례, 칠경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사시불공, 삼보통칭, 퇴공, 각단불공등
 - 제의식: 49계 및 친도의식, 시달림등
 - 시: 식: 관음시, 상용영문, 화엄시, 구명시, 일반시, 일반시식등
- 2. 학년 과정**
 - 상주권공: 합창, 등계, 합장, 고향, 개계, 세수, 복장, 사방찬, 참회, 계, 시련, 대연, 관음, 응호, 계(신중작법39위), 상단권공, 중단권공, 관음시, 봉송회향(49계 및 일반친도의식)
 - 바라춤: 요강 (막바라), 천수바라, 사다리나바라, 화의제바라, 명바라
 - 나비춤: 도량, 다계, 운신, 계, 육건이(음남), 사방유신
 - 사: 물: 태정, 북, 요령, 목탁(전통의식작법)
 - 특: 강: 향화계착목, 가지계, 계불이은, 종사이은, 점안의식 등
- 3. 개강일시:** 2005년 3월중 (1학년 매주 목요일 오후2시~6시까지 2학년 매주 금요일 오후2시~6시까지) 편입가능
- 4. 입학자격:** 종단과 송 속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5. 수 강 료:** 입학금10만원 (교재비 포함), 월10만원
- 6. 강의장소:** 태고종 대구경북중부원 설립전
- 7. 제출서류:**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1부
- 8. 접 수 처:**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 경북중부원 (전화접수 가능)
- 9. 접수기간:** 2005년 2월 25일까지
- 10. 연 락 처:** 053)622-3702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 경북대구 중부원 부설 법배 교육원

2차 성명서

무속인이 사암의 간판을 달고 불상을 모시고 굿당을 하고 있다. 무속인은 신령과 영신이 있다. 사암에서는 스님들께서 수계하고 불상을 모시고 수행정진하는 것이다. 무속인이 사암을 사칭하여 사월초파일에 등을 달고 하는 것은 불법이며 탈법이다 이점 인식하시고 무속인들께서 부처모신 불상을 치우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개신교 측에서는 불교를 미신이라고 타파한다. 불상을 모시고 신명으로 굿을 하니까 개신교 측에서 미신이라고 한다. 무속인은 본연의 행사를 하시고 부처님은 절의 스님들께서 모셔야 한다. 무속인들께서 이에 답변을 요망한다. 불교발전연구협의회 일동은 현재 미래에 문제점을 풀어가야 한다. 3차성명서에서는 이에 화답이 없을 시 법적절차를 밟을 것이다.

대표
 상산 해광 법랑 해만 법상 해우 법행 우에
 011-9836-9561 (번호 수정하여 다시 게재함)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蔘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蔘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게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특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蔘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년산삼(長蘘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蔘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변비가 나왔다.
● 만성위염이 나왔다.	● 혈색이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왔다.	● 기력이 좋아졌다.
● 천식이 없어졌다.	● 맥혈병이 나왔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마르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몸이 부기가 빠졌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임파선이 나왔다.	
● 자궁 출혈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서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열기에 드리고자 합니다. (성품 : 시주가 10kg당 40만 원, 20만 원, 10만 원에 드려집니다.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행사 : 스님들과 불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담은합니다.(1000원 한정)

만삼일일물(만삼 생것 10kg · 향기 · 진대 · 살지유염초 · 생강 · 대추 · 감초)

● 1Box(60포 ~ 20만원) ● 2Box(1120포 ~ 3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 P : 011-9242-8292
 ◆ 동업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